

野 국회부의장, 박상천-문희상-김영진 '3파전'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 대표의 국회 부의장 합의를 추대가 결국 무산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통합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5선)에 이어 문희상 의원(4선)과 김영진 의원(5선)이 경선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다.

일단 박 대표는 3번의 원내총무 경험을 내세워 원내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그동안 합의 추대를 받기 위해 평소 분당 세력이라고 지적해 왔던 구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에게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며 지지세를 넓혀 왔다.

특히 원내에서는 박 대표 측에서 구 민주당 계열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7·6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 및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는 일

朴 원내총무 3번 등 풍부한 경험 강점 文 수도권·구 우리당 출신 의원들 지지 金 광주·전남지역 기반 경선 완주 천명

부 후보측과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원내 일각에서도 민주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박 대표의 국회 부의장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 열린우리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물론 구 민주당 출신 일부 의원들도 지난 대선 및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을 이유로 박 대표의 국회 부의장 진출에 내심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은 경선 구도에 북빙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동안 당 대표와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고심해온 문희상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로부터의 잇따른 출마 권유를 받고 최근 부의장직 도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인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의원은 박 대표에 비해 선수에서 밀리지만 수도권 및 구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경쟁력을 갖췄다.

는 평가다.

다만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점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 대표 경선 구도에서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당 대표와 국회 부의장 등 당내의 요직을 열린우리당 출신이 독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도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국회부의장 도전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대선·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내 인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의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 시기는 5일로 예정된 개원식 참석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U대회 유치 재도전, 시민 뜻에 따르겠다"

박광태 광주시장 "시민 열정·성원에 깊은 감사"

박광태 광주시장은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재도전에 대해 "시민들의 뜻이 어떻게 모아지지 않든 그 뜻을 기억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대회 재도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아쉬운 생각과 아픈 마음을 추스르는 상황에서 재도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이 내년 5월경 2015년 U대회 개최지를 정하기로 공식발표했다"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제안은 김운용 명예유치위원장이 북한의 장웅 북한 IOC 위원과의 합의를 거쳐 이뤄낸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로 연결되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시장과의 일문일답 -유치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 카잔의 '삼수'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 이번에 안되면 영영 포기한다는 카잔의 전락이 상당 부분 먹혀들었던 것 같다. 막판 3~4일간 기류가 변했다. 러시아의 푸틴 총리가 파리에서 뛰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잔 등 상대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실사에서 시민열기, 교통 인프라는 우리가 앞섰으나, 카잔이 숙박시설, 경기장 시설에서 상당히 준비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정부지원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광주시가 요청한 대로 광주지지를 요청하는 친서를 집행위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열정적으로 도와줬다.

-2015년 대회 유치가능성은 ▲대회 유치는 한마디로 전쟁이다. 독일 함부르크 등 유명 도시들이 앞다투어 대회 유치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 갈수록 힘들 것이다. 심



지어 아프리카, 동남아 도시들도 움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는 늦게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가장 감격스런 것은 시민들의 감동적인 참여와 성원이었다. 이런 열정이 있는 한 광주의 미래는 밝고 광주의 큰 꿈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번 유치전을 통해 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시민들의 열정이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쇠고기 재협상하라"

전남도의회 상경 '삭발' 투쟁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 서울에서 소속의원들이 삭발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김종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7명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삭발을 갖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까지 핑계된 수입 협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 현 정권은 배후세력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까지 무더기로 연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 국정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가운데 고승자(59·여·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은 삭발을 단행했으며, 나머지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에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뒤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막 농성을 벌이는 등 3일간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재·보궐 선거, 민주당 지지해 주세요"

송영길 쇠고기 고시 무효 및 재협상 추진본부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6·4 재보선에서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역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송영길, 김재운 의원. /연합뉴스

광주 남구 지역위원장 6명 압축

민주 조직강화특위, 내일 결과 발표

통합민주당은 3일 남구지역위원장에 응모한 10명의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으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화진 민주당 광주시장 부위원장,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 이윤정 전 한전

KDN 감사, 이재천 민주당 사무부총장, 정기남 정동영 대선후보 공보팀, 지방문 전 국회의원 등이 1차 압축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 남구지역 위원장의 경우 경험이 치열해 1차적으로 6명을 선별했다"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지흥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4곳 등 오늘 재·보궐선거

선관위 투표 참여 독려...밤 10시께 당락 판기름

영광군수와 광주시의원을 비롯 기초단체장 9명과 광역·기초의원 43명을 뽑는 6·4 재·보궐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전남 73곳을 비롯 전국 1천216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8대 총선이 마무리된 지 2개월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인데다 뚜렷한 이슈도 없어 투표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의 성적과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쇠고기 파동에 따른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18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대선·총선 연패를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영광 군수와 광주시의원(남구 1선거구), 광주 남구의원(남구 가 선거구) 그리고 광양시의원(다 선거구) 등 4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마감되는 지난 3일 밤 12시까지 한 표라도 더 건지기 위해 표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영광군수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민주당 정기호 후보의 강세 속에 무소속 장현, 김규현 후보 등이 맹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원 선거에는 민주당의 김선문 후보와 자유선진당의 서의환 후보, 민주노동당의 이승기 후보, 무소속 강도석 후보가 4파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 남구의원과 광양시의원 선거에도 각각 3명과 4명씩의 후보가 출마,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개표는 광주 남구청을 비롯 광주·

전남 3개 개표소에서 이뤄지며, 심이 있는 영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늦어도 밤 10시에는 당락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는 물론, 한 표 한 표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심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이번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을 경우 투표하는 사람에게 선거일 다음날부터 5일 동안 대형 마트에서 3% 할인 혜택을 주고, 최다 투표가 졌고 최고령·최연소 투표자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갖가지 투표 유인책을 마련했다.

광주시 선관위도 투표자에게 이달 말까지 유용한 콜럼버스시네마 영화관 2천 원 할인권을 제공키로 하는 등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준비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08년 서울시 지방직(총1789명) 선발완벽대비"

서울시 문제풀이반

6월2일(월)개강 6월23일(일)~7월12일(토)

"2008년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 100% 합격"

아간특별반 6월2일(월)개강

학장인반·재학생반·특채대비반

1명만·관무원·동시·면접지침·패시

공무원학원의 리더!!

동부고시학원

www.dongbugosi.co.kr
시내 예술의거리 062-233-0509

전남·전북·충청·경남·제주

오피스빌·상가 임대/분양

100% 분양권

1577-0733